

'25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 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5-07	7.16	회의실	11/12	4	1	16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김동진·박양우·박종수·반수경·설제학·양지현·유한별·이경주·이미진·정인영·정희(11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원승연(경영본부장), 김민호(콘텐츠본부장), 김철원(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9	3	0	0	12	0	12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2	0	0	12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AI 산업에 관심 가지고 선도 필요	<뉴스투데이> “AI가 직원 10명 뛴”··창업 기업의 인력난 해결(7.30), 교통약자 스마트카 기술개발에 국비 70억 원 지원(8.5), <뉴스데스크> 강기정 광주 시장, “특별재난지역 선포·AI 예타 면제 기대”(8.4), 국가AI컴퓨팅센터 3차 공모 임박 광주시 유치 속도(8.10)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전남에 구축··정부 확정한 의지 표명(8.1) 등 방송 조치	'25.7
"	<시사용광로> 패널 참여 등 통해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 필요	보도 책임자와 프로그램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7.28)	"
"	<시사용광로> 시청자 전화, 댓글, 실시간 질의응답 등 시민 참여 창구 없어 아쉬움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 참여 운영 및 방송 시 소개 등 조치	"
"	기업명, 지역명 등 고유명사를 압축해서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표준말, 바른말 사용 필요	보도 책임자와 프로그램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7.28)	"
"	<시사용광로> 강기정 시장 편, 패널 2~3명 참여해 객관적인 질문 등 필요	보도 책임자와 프로그램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7.28)	"
"	재난 재해 관련 시민의 안전을 위한 깊이 있는 뉴스 바람	<뉴스투데이> 5년 만에 또··반복되는 비 피해(7.22), <뉴스데스크> 광주 기록적 폭우 “순식간에 물 차올라”(7.18) 물그릇 된 광주 신안교 일대 “홍수예방 시설이 되레 피해 키웠다”(7.21), 도심 곳곳 상습 물그릇··방재시설은 하세월 (7.23), <시사용광로> 폭우 피해와 민생 회복, 자치구 상황은?(7.24) 등 방송 조치	"
"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보도 바람	<뉴스데스크> 개인 지하수서 대장균 광주 상무대로 땅 꺼짐··화정동 일대 일부 통제(7.22), 관리 사각지대(7.21), 1급 발암물질 공문 패싱 광산구(7.22), 광주 상무대로 땅 꺼짐··화정동 일대 일부 통제(7.22), <시사특라이브> 광주 지역 호우 피해 현황과 대책(7.21) 등 방송 조치	"
"	군공항 이전 관련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보도해주길 바람	<뉴스투데이>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부단체장 실무 미팅(8.5) 등 방송 조치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디지털플랫폼과의 연계 강화해 폭넓은 연령층의 접근성과 참여도 높이길 바람	카카오톡 시청자 실시간 참여, 유튜브 라이브 등 운영 조치	"
"	<빛나는 나의 도시>, 지역에 특화된 음식을 소개하길 바람	<빛나는 나의 도시> 삼복더위엔 인생백숙 레슨(7.23) 등 방송 조치	"
"	시를 다룬 프로그램이 많아지길 바람	TV 6부작, 라디오 12부작 <지역생존시 프로젝트-우리 고향, 부탁해!> 12부작 제작 중	"
보도(시청자 의견)	농촌 지역 의료시설 부족 등 관심 필요	<뉴스투데이> 전남지역 필수 의사제 24명 모집에 4명 지원(7.29) <뉴스데스크> 의사 없는 전남...시니어 의사 모집 절반에 불과(8.10) 등 방송 조치	"
합계		1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AI 산업에 관심 가지고 선도 필요	AI 예비타당성 면제를 비롯해 지역 사회가 공을 들이고 있는 미래산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 두고 보도하겠습니다	○		
"	<시사용광로> 패널 참여 등 통해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 필요	<시사용광로> 패널과 주제 선정에 있어 다양성과 객관성, 공정성에 근거해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시사용광로> 시청자 전화, 댓글, 실시간 질의응답 등 시민 참여 창구 없어 아쉬움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통해 시청자 반응을 수집해 전달하고 있지만 방송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를 못 하는 경우가 있음. 앞으로는 가급적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기업명, 지역명 등 고유명사를 압축해서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표준말, 바른말 사용 필요	금호타이어를 ‘금타’로 줄여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기자들에게 친절하게 풀어서 쓰도록 고지하고 교육하겠습니다	○		
"	<시사용광로> 강기정 시장 편, 패널 2~3명 참여해 객관적인 질문 등 필요	정치인, 단체장이 출연하는 토론프로그램의 경우 지지와 견제하는 패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	재난 재해 관련 시민의 안전을 위한 깊이 있는 뉴스 바람	앞으로도 재난방송에 있어서 만큼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보도 바람	사건의 현장뿐만 아니라 이면의 원인과 대책까지도 심도 있게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		
"	군공항 이전 관련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보도해주길 바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겠습니다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디지털플랫폼과의 연계 강화해 폭넓은 연령층의 접근성과 참여도 높이길 바람	시청층을 다양화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		
"	<빛나는 나의 도시>, 지역에 특화된 음식을 소개하길 바람	지역과 연관된 음식 문화를 계속해서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시를 다룬 프로그램이 많아지길 바람	시를 이용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시 청자 의견)	농촌 지역 의료시설 부족 등 관심 필요	지역소멸과 농어촌의 열악한 실태 지속해 보도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5년 7월)

일시	2025년 7월 16일(수) 17시	장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김동진 · 박양우 · 박종수 · 반수경 · 설제학 · 양지현 · 유한별 · 이경주 · 이미진 · 정인영 · 정희 위원(11명)	
	회사	김낙곤 사장, 원승연 경영본부장,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김철원 보도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박양우 위원장 : -반갑다. 서울은 비가 안 왔는데 여긴 비가 왔다. 그동안 날씨가 더웠다. 무더위에 다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김민호 본부장 수상 축하드린다. 광주MBC가 대단한 것 같다.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 시청자위원회 위원님들도 성실하게 잘해주셔서 어느 시청자위원회보다도 잘 운영이 된다고 감히 제가 애길 한다. 7월 시청자위원회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바쁜 시간인데도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께 감사드린다. 지난달 새로운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했는데, 저희는 시청자위원회를 주인으로 모시고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 박양우 위원장 : -콘텐츠본부부터 주요 보고를 해달라.
-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 -6월 18일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오월어머니합창단 일본 오사가 공연을 촬영해 방송했다. 7월까지 중장년 희망 캠페인을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8주간 진행하며, 6월 23일~24일 <더 프레지던트>에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박찬수 한겨레 대기자 인터뷰 촬영을 진행했다. 6월 24일~25일 <테마기행 길> 구례 편 촬영을 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특별 공로상을 제가 받았다. 주요 계획으로는 방송문화진흥회 제작지원 라디오 특집 <잘파들의 소리>를 취재할 예정이다. 라디오 AI 특집 12부작 제작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시안 탑 밴드> 시즌3는 11월에 녹화할 예정이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제작지원 <두근두근 동창회> 녹화가 8월 말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또한 협회에서 진행하는 AI 사업 선정을 위해 컨소시엄을 준비한다. 7월 21일 편성제작팀 업무 분담, 23일 라디오 개편 회의, <라디오 칼럼> 신규 칼럼니스트 위촉 등을 준비하고 있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보도본부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무등일보, 뉴시스와 함께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광주시장 여론조사 결과가 예상보다 뛰어넘는 결과 나와서 지역사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연말 연초에 여론조사를 한 번 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타운홀미팅 이후 긴급 토론회를 방송했다. 타운홀미팅에서 나왔어야 할 여론이 어떤 것이어야 했는지 토론을 통해서 짚어봤다. 보도본부 출입처 개편을 했고, <시사용광로>에서는 새 정부의 민생 회복 방향, 비수도권 지역의 생존전략, 특집 토론 이재명 정부 출범, 호남의 전략은?, 정부 주도 광주 군공항 이전, 새 국면 맞나?, 민선 8기 3년 광주는 지금을 주제로 방송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네이버 포털 입점 TF를 출범해 진행할 것이다. 4년 전 실패를 발판 삼아 네이버 입점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다채롭고 심층적인 뉴스를 위해 출입처 개편 이후 다양한 분야의 심층 뉴스 발굴을 계속하고, 한 걸음 더, 취재가 시작되자 코너 물을 적극 활용하겠다.
- 박양우 위원장 : -감사드린다. 보고사항 관련해 의문이 있거나 제안해주실 것이 있으면 해주고, 이후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 정희 위원 : -광주가 AI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저도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다. MBC 라디오에서 AI를 12부작 방송한다고 했는데, 광주MBC가 제작하는 것인가?
-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 -지역 MBC 공동제작이다. AI 기술을 접목해 제작하려고 한다. 회사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AI 문화수도 캠페인을 해볼까 한다.
- 박양우 위원장 : -모든 도시가 AI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는 어떤 AI일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것인지, 단계별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안되

는 것 같다. 광주MBC라도 그걸 공론화하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막연하게 AI를 말한다. 지난번 토론할 때 보니까 꽤 낙관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쉽게 되는 게 아니다. 마지막 까지 의제 채택이 되고, 예산을 가져오는 치열한 싸움이다. 구체적 계획이 없으면 추진하기 힘든데 우리가 너무 낙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가 아직 구체적인 걸 못 했다면 광주MBC가 두세 번만 해도 가닥이 잡힐 것이다. 광주MBC가 AI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선도해나가면 좋겠다.

- 김낙곤 사장 : -방금 말씀하신 걸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AI 문화수도를 위해 어떤 걸 정부에 요구할 것인가 고민하겠다. 방송이 플랫폼 역할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역할을 다하겠다. AI 산업 발전을 위해 구체화하는 역할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 박양우 위원장 : -지금쯤이면 밑그림이 나와서 새 정부에게 요구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계획이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다. 프로그램할 때 추진은 시에서 해나가야 한다. 시에서 지방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면 좋겠다. 바로 피드백이 되고 진행 상황도 시민에게 바로 알려줘야 한다. 할 수 있으면 중앙에서도 모셔 와서 지방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제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 김동진 위원 :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호흡하는 광주MBC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시청하고 있다. 그 중 특히 눈에 띈 것은 지역 일상과 밀착한 <생방송 빛나는 나의 도시>와 지역 현안을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시사용광로>이다. <빛나는 나의 도시>는 광주와 전남의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경쾌하게 구성해 시민의 일상과 지역문화를 따뜻하게 연결하고 있다. 청취자 사연, 음식·여행 정보, 지역 행사 소개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균형감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광주MBC의 유튜브 채널 및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면 MZ세대를 포함한 더 폭넓은 연령층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시사용광로>는 지역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보기 드물게 수준 높은 토론 구조와 깊이 있는 논의가 인상적이다. 특히 광역행정 이슈와 관련해 시민 목소리를 실제 정책 현장에 연결하려는 시도는 매우 의미 있다. 다만, 일부 회차에서 출연자 구성이 특정 정파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점은 제작진이 더 신중하게 고려해주셨으면 한다.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한다면 지역민의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광주MBC는 지역 공론장의 중심축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매체다. 앞으로도 지역성과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시대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연한 콘텐츠 개발을 기대한다.
- 박종수 위원 : -<시사용광로>에서는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3년 성과와 남은 임기 1년의 과제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강 시장이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강기정 시장이 직접 출연하여 자신의 정책 성과를 설명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과 현장감이 높았으며 광주 군공항 이전, 골목상권 회복 등 지역민이 체감하는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시청자의 관심을 끌 만했다. 그리고 일방적 홍보가 아닌, 진행자와의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시장의 입장을 검증하고 설명을 유도하는 점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하나 생방송이었음에도 시청자 전화나 댓글 질문, 실시간 질의응답 등 시민 참여 창구가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다음 회차부터는 양방향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 환경, 청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시각이 함께 제시되었더라면 더 풍부한 토론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번 방송은 지역 행정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중요한 시점에서, 시청자에게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 방송의 공적 역할 수행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 다만, 앞으로는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담아내는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며, 시청자 참여형 시사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본다.
- 반수경 위원 : -<시사용광로> '해묵은 숙제 교통 문제 해법은?'을 시청했다. 먼저 TV 화면에 보이는 배경과 분위기는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어 시청자에게 편안함을 주었다. 초대 게스트를 모시고 주제에 따른 내용을 풀어갈 때 관심이 가도록 구도가 안정적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모시고 교통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끌어가는 시간이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진행자는 게스트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밀어주는 게 보통인데 방송에서 진행자는 강 시장님 편에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약간 부정적인 의문점들을 살짝 우회해서 꼬집듯이 해답을 찾아가는 상황이 보는 이로 하여금 해답을 주는 듯 시원한 느낌을 받았다. 또한 시기적으로 주요 일정 등을 재확인 차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강조하는 점은 시청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진행 방법이라고 생각되었다. 다만, 주어진 방송시간을 진행해야 할 내용

에 따라 구조화를 잘해서 시간의 한계를 자주 언급하는 점은 시정해주면 좋을 듯하다.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 관계상, 이런 멘트를 여러 번 듣는 시청자는 마음이 조급하고 불편하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매끄러운 진행으로 자연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진행자가 기업명 또는 지역명 같은 고유명사를 말할 때 요즘 유행하는 압축어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일신방직을 일방, 전남방직을 전방이라고 말했는데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도 어딘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은 표준말 등 바른말을 사용해야 할 공신력 있는 방송에서 풀 네임을 사용해야 시청자들에게 이해는 물론 올바른 언어사용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

- 설계학 위원 : -7월 10일 방송된 <시사용광로>는 시청 전 제목을 먼저 생각해볼 때 “강기정호”라는 네이밍을 제목으로 선택하면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유추해볼 수 있었다. 단체의 수장이 나와서 과정이나 상황 혹은 결과를 설명할 때 상황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강기정 시장의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일반 시청자 입장, 시정에 관심이 많거나 호의적인 입장, 관심이 없거나 비호의적인 입장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을 차이가 컸을 거라 생각된다. 생방송으로 사회자와 대화하는 형식의 신선함은 매우 돋보였다. 단점이라 하면 강기정 시장의 계속된 답변과 설명의 형태보다는, 약 2~3명의 전문가 혹은 준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서 3년 동안 잘했던 점은 칭찬으로, 아쉬운 부분은 더 힘써달라는 과정을 보여주었으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보였을 거 같다.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처럼 일반 시민이 참여해서 시장과 대화하는 내용이 추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된다.
- 양지현 위원 : -7월 8일과 9일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보양식 소개를 했다. 이 시기에 적절한 소식이다. 음식 소개할 때 부산 오리탕과 양탕이 나왔다. 우리 지역에서도 너무 유명한 음식들인데 왜 부산지역의 유명한 음식으로 소개하는지 궁금했다. 그 지역에 특화된 음식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도초도 수국정원 소개와 정원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잘 소개되어 관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9일 광주극장 새 단장 소개와 데이비드 런치 감독 회고전은 광주문화의 상징인 광주극장으로 추억여행 떠나는 것 같았다.
- 유한별 위원 : -<시사용광로> ‘비수도권 지역의 생존전략’은 지방자치에 대한 진단, 지자체장과 의회의 견제와 균형에 대한 의견 등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었다. 또한 지역소멸 극복 방안으로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난점 설명에 이어 행정통합으로 지역발전의 효과를 거두는 방안들까지 논의가 되어 전체적으로 완결성이 높은 편이었다.
 -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 여러 차례 방송되고 있는 의회의 인물 코너가 눈길을 끈다. 패널로 나오신 두 의원의 여유 있으면서도 재치 있는 답변을 통해 이 대통령의 새로운 ‘5극 3특’ 체제, 이와 관련한 호남권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비전 등이 명료하게 전달되었다.
- 이경주 위원 : -광주MBC에서 보도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관련 뉴스는 지역 언론이 재난 상황을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될 정도로 대규모로 번진 화재의 긴박함을 현장 영상과 함께 실감 나게 전했고, 인명 피해와 주민 건강 문제, 고용 불안까지 폭넓게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보도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단순히 화재 발생 소식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진행된 노동자 고용 불안 문제까지 후속보도를 이어가며 지역경제와 삶의 문제를 밀도 있게 조명했다는 점이다. 지역방송으로서 시청자 곁에 밀착한 저널리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다만, 광주MBC가 공장 내 가연성 자재의 문제, 초기 화재 대응 과정, 일부 주민 피해와 고용 불안 등을 충실히 다뤄주었음에도, 공장 구조적 안전 시스템의 취약점이나 예방 체계의 반복적 문제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이 병행되었더라면 보도의 설득력이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공기 질 수치, 장기 건강 영향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나 보건 전문가의 의견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라면, 피해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사고의 근본 원인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 주민의 체감 피해나 불안에 더욱 집중한 기획형 보도, 그리고 시민 인터뷰나 현장 목소리를 담은 리포트가 더해진다면 방송의 공공성과 현장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보도를 통해 광주MBC가 지역 재난 보도의 모범을 제시해 주었듯,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깊이 있는 뉴스가 지속되길 바란다.
 - 7월 10일 보도한 ‘폭염 속 발일하던 80대 여성 사망…통계에 빠져’는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서, 제

도 밖으로 밀려난 생명을 조명하고 행정 통계의 사각지대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인상 깊은 보도였다. 폭염이라는 재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 통계가 여전히 ‘응급실 내원자’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 보도는 그 맹점을 날카롭게 짚어주었다. 특히 현장에서의 열악한 노동 환경, 의료기관에 이르기에도 전에 사망한 사례가 통계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농촌 고령층의 실질적인 피해가 정책 밖에 놓여 있음을 드러낸 중요한 문제 제기였다. 기자의 내레이션과 주민 인터뷰, 검안 소견 등을 통해 현장의 온도와 체감 상황을 생생하게 전한 구성 역시 시청자로서 몰입을 이끌기에 충분했다. 다만, 지역 단위에서 이 같은 통계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행정적 대안이나 타 지자체 사례 등이 함께 제시되었다면, 보도의 깊이와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번 보도는 단순한 사고 소식이 아닌, 기록되지 않은 고통과 목소리를 제도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앞으로도 광주MBC가 지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시선으로, 일상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비추는 보도를 이어가길 기대한다.

- 이미진 부위원장 : -<뉴스데스크> ‘광주 초등학교서 ‘집단 위험 징후’...“교육 당국 비상”’ 보도를 인상 깊게 시청했다. 최근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숨진 사건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우리 지역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학생 상담을 확대하는 등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뉴스를 통해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학생들의 위험 징후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일어난 후가 아닌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데 교육 당국뿐 아니라 광주MBC가 함께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보도해주길 바란다.

-<뉴스데스크> ‘도화지에 담긴 광천 시민아파트’에서는 광주 최초의 아파트인 광천 시민아파트의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를 앞둔 가운데, 그림 동호인들이 아파트의 마지막 모습을 그린 그림을 전시한 전시회 소식이었다. 광주시민의 한 명으로서 광주 역사와 5.18정신이 깃든 소중한 아파트를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전시회 소식을 광주MBC를 통해 접하게 된 것이다. 29일 이전에 한 번 찾아가 감상하고 추억할 예정이다. 지역의 살아있는 역사를 늘 발 빠르게 취재해 전달해주는 광주MBC에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다.

- 정인영 위원 : -7월 11일 방송된 <시사용광로>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지난 3년간 시정 성과와 남은 1년 과제를 중심으로 한 대담이다. 주요 정책 방향을 시청자 관점에서 점검할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실시간 시민 반응을 반영하는 라이브 대담 형식은 지역방송의 공공성과 쌍방향성을 잘 살린 시도로 보인다. 정책을 더욱 친근하게 전달하려는 구성도 긍정적이었다. 다만 대담이 다소 시정 홍보에 집중되었다는 인상도 있었으며, 비판적 시각이나 반대 의견을 균형 있게 담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향후 정책 점검 방송에서는 구체적인 시민 사례나 현장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깊이 있는 정책 토론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7월 15일 방송된 <시사용광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 주도 방식 전환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다뤘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일방의 논리가 아닌 찬반 양측 관점에서 조명하려는 진행자의 균형 감각과 박균택 교수의 논리적 해설은 시청자에게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특히 실시간 댓글을 통한 시민 참여 방식은 광주MBC만의 장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도 주요 지역 현안에 있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창구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에 비해 인터뷰나 현장 취재가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웠다. 군공항 이전이 가져올 실제 영향과 갈등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 중심 접근이 병행된다면 시청자의 몰입도와 정책 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방송은 지역 갈등을 단순 대립 구도로 다루기보다 정책 결정 과정과 지역사회 변화까지 포괄한 공론장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앞으로도 이 사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적해 주길 기대한다.

- 정희 위원 : -<빛나는 나의 도시> 빛보드 뉴스 TOP3를 보면 광주가 출생률은 높지만, 유출이 많아 인구이동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내용이였다. 광주가 GIST, 데이터센터 등을 기반으로 AI 중심도시로 변화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다고 생각했다. AI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더욱 빈번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7월 18일부터 12부작이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다는데 기대된다.

-7월 11일 <5시 뉴스> 관련 의견이다. 광주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이 지역민들이 꼽은

최우선 과제 1순위로 등장하였고, 대통령실에서 관련 TF를 구성해 국가 차원의 대응에 속도감을 부여한다는 뉴스는 광주뿐만 아니라 무안군, 전남도의 생각 변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조사, 주요 이해관계자의 발언 등이 주기적으로 방송되기를 기대한다.

-<시사용광로> 강기정호 3년 평가와 향후 과제에서, “공직자들이 시장 앞에서 토론도 하고 보고도 하고 결재도 받을 때 나도 저랬을 수 있겠다”라는 역지사지의 생각을 조희 시간에 얘기하였다는 강기정 시장의 언급을 들었다. 군공항 이전, AI 시대 준비, 공공요금 등의 조정 등에 있어 역지사지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박양우 위원장 : -<광주MBC 특집 토론 새 정부 출범, 호남의 전략은?>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고 국가정책 설계가 진행 중인 시기에 매우 적절한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해서 이른바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명쾌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이 고조되고 있던 터라 더 의미가 깊었다. 먼저 토론 의제와 관련해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호남이 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삼은 것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AI 혁신도시와 재생에너지 선도지역으로의 비전을 주 의제로 설정했는데, 주 의제 선정도 무난했다고 본다. 자연스럽게 다섯 명의 패널 중 세 명을 이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것도 적절했다. 다만, 어차피 이 과제는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전라남도가 추진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광주광역시 부시장과 전라남도 부지사 또는 고위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했다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데도 지난 타운홀 미팅 때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정책 건의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인지, 당황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워낙 대응을 잘 못하고, 대통령께 편찬받은 셈이 되어 시민들의 불안이 크던 차에 이번 특집방송을 통한 패널들의 토론 내용은 시민들을 어느 정도 안심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MBC는 이 지역 선도 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잘했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광주MBC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패널들이 새 정부의 AI,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광주, 호남 우선 정책을 펼 것이라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어느 주요 도시치고 AI와 재생에너지, 특히 AI를 부르짖지 않은 도시가 없는 실정이다. 광주광역시가 AI에 한 발짝 앞선 것 같지만 아직은 초보 단계로 확실한 AI 혁신도시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지금부터 정교한 정책 설계와 피나는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특집 토론에서 막연한 낙관론보다는 구체적인 AI 혁신도시의 방향 설정, 구체적 일정, 단계별 필요한 사항, 특히 대통령께서 주문했던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원 사항 등을 좀 더 집요하게 토론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재생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번 정부의 세 가지 정책 비전 중 세 번째 항목인 5대 문화콘텐츠 강국 문제도 나중 다룰만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문화수도를 표방한 아시아중심도시 광주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책 비전이기 때문이다. 이 주제는 이번 토론에서 안도걸 의원이 잠깐 스치듯 언급하고 지나가 조금 아쉬웠다. 이 의제는 단순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창작소 기능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를 어떻게 문화창조도시로 만드느냐는 훨씬 큰 비전과 관련되는 문제다. 안타까운 것은 광주광역시가 과연 이런 비전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점이다. 광주MBC에서 광주의 주요 비전에 관한 의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기타 의견으로 시청자 의견이 제시됐다. 강진에 거주한 군민인데 대학병원에 가려면 1시간씩은 차를 타고 가야 하고 입원실이 있는 병원도 몇 개 없다는 것이다. 병원이 없다는 게 귀농, 귀촌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고 그나마 있는 병원이 없어지는 일도 있어 심각하며 이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촌 등 소멸 우려 지역의 의료시설 부족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방송에서도 의료시설 외에 낙후한 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에 관하여 계속하여 관심을 두길 바란다.

- 김낙곤 사장 :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모니터링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셨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 광주MBC는 지상파를 탑재한 플랫폼 회사다. 다양한 디지털 채널도 있다. 디지털 채널에도 다양한 콘텐츠가 있으니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감사드립니다.

끝.